

고흥 지역 명문학교 육성 박차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50개 사업 추진

창의 인재양성 등 5년간 총 174억원 투입

고흥군이 최근 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완성하고 올해부터 교육경비를 대폭 확대 지원하는 등 명문학교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이 마련한 이번 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학교, 교육지원청,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과 간담회 및 실무협의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립됐다.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지원 대상은 학생, 교사, 학교로 세분화해 6개의 중점과제와 50개의 단위사업에 5년간 총 174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주목할 분야로는 지난해 전남 최초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전체 학생들에게 입학 축하금 30만원과 귀향인 자녀 어울림 장학금 3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에는 교사들의 노고와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수당 월 10만원을 신설한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중심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 다자녀, 다문화, 귀향인 자녀 등 8개 분야에 장학금 3억7,000만원, 관내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특성화고 취업대비 프로그램 등 중·고등학생 진로·진학 기회 확대 사업

3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심화 멘토링 및 방과 후 학습, 학생 영어·한국사 경시대회, 중고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고등학생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료 지원 등 학력향상 지원 10억3,000만원, 중학생 국제교류, 고등학생 국제체험, 역사문화 탐방 등 바른 인성 함양 지원 1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학생 기숙사비, 농산 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등 교육복지 지원 8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31개 사업에 26억7,000만원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우수교사 양성 지원을 위해 담임교사 수당, 교직원 국외체험, 교사의 날 운영, 우수교원 표창 등 6개 사업을 신설해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고흥 역사탐방을 통한 인성교육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우수 대학생 배출 인센티브 등 학교지원 사업에 6,100만원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지급액을 학교 자체 장학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내 초, 중학생들의 보편적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교육 지구 운영,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진로·진학 박람회, 방과 후 드론교실 운영, 초등 영어전담 강사 지원 등 10개 사업 6억7,000만원을 고흥교육 지원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올해를 지역 명문 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학교, 행정, 학부모,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교육정책으로 명문학교 육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여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건립

내년까지 신축...주·야간 돌봄서비스도

여수시가 24시간 매달려야 하는 중증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양육부담과 고통을 덜기 위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동을 재건축해 지상 1층 연면적 490㎡ 규모로 2021년 까지 신축할 계획이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 및 지역사회생활을 제공해 보호자에게 단기 휴식을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의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여수시는 최근 실시설계를 시작으

로 BF(장애물 없는 건축물)에비인증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는 10월 공사를 착공, 2021년 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여수시 등록 장애인은 1만8,000여명으로 이중 중증장애인은 6,400여명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건립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대기자들의 단기간 거주 및 주·야간 돌봄 서비스 등으로 권리 보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기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여수 울촌면 봄맞이 꽃밭 조성

여수시 울촌면은 최근 완연한 봄을 맞아 새마을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 소속 회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패랭이꽃, 팬지, 금잔화 등 봄꽃모 8,300본을 취적리 국도변 공한지에 심었다.

울촌면 취적리 국도변은 여수와 순천을 오가는 길목으로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고 있어 이번 봄꽃 심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향기가 넘치는 아름다움을 선사하게 됐다.

이재중 울촌면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역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여수가꾸기 꽃밭 조성에 함께 해준 울촌면 자생단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여수시 울촌면은 최근 봄을 맞아 취적리 국도변 공한지에 꽃밭을 조성했다.

/여수시 제공

보성 내달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보성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과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으로 지역내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생겨난 소비 위축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생인력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 농가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임대료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

산이 농업을 비롯한 보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지역 경기 부양을 동시에 챙기며 투트랙 전략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부양책으로 ▲군 직영 시설 임대료 감면 ▲공무원 1팀·1식당 전담제 실시 ▲안심 도시민 식당 운영 ▲지역 화매 추가 발행 및 10% 특별할인(20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지급(54억원) ▲상반기 2,011억원 신속집행 ▲추가경정예산 488억원 긴급투입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중국 샤먼시, 광양에 마스크 1만장 지원

지난 17일 이어 두 번째

광양시는 중국 샤먼시에서 코로나19 긴급 구호물품으로 N95 마스크 1만장을 보내왔다고 24일 밝혔다.

샤먼시는 한국 내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호 도시인 광양시가 방역작업과 구호물품 수급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한 다음 광양시민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마스크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2월 초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이 급속 확산하기 시작할 때 광양시장의 따뜻한 위문 서한과 적시에 보내준 성의에 큰 힘이 됐다”며 “이제는 샤먼시가 광양시에 도움이 되고 싶다. 양 시가 힘을 합쳐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장자한 샤먼시장의 진필 서한문도 함께 보내와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우호도시 샤먼시에서 보내온 온정에 감사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계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샤먼시에서 보내온 구호물품은 지난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 통관 절차를 거쳐 24일 오전 광양시에 도착했다. 박스에는 당 현중 이릉기의 시구인 ‘急難有情, 情有餘兮’(급난유정, 정유여

해-어려움 속에 진정한 우정이 있고, 그 우정은 넘쳐 흐른다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마스크는 도착 당일부터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시민들에게 배부를 시작했다.

이번 샤먼시 마스크 지원은 지난 17일 다렌시 긴급 구호물품 지원(마스크, 방호복, 의료용 장갑 등 2만6,500개 4500만원 상당)에 이어 두 번째다. 선전시와 잉커우시, 푸저우시 등 기타 자매·우호 도시들의 구호물품도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보성군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7월까지 감면기로 했다. /보성군 제공

클릭! 고흥 속으로



곡성 석곡면 번영회, 환경정화활동

곡성군 석곡면 번영회가 공중위생 증진에 솔선수범하며 코로나19로 가려졌던 지역사회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24일 석곡면 번영회에 따르면 번영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원들이 직접 지역상가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에 나섰다. 회원들은 2명씩 한 조로 코로나 방역

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생활쓰레기 수거활동을 통해 쾌적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도 힘을 쏟았으며 국도변과 하천변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1,000l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전형동 번영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역과 환경정화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순천대 신입교원 워크숍·인권교육

순천대는 최근 학내 국제교류교육원 창조실에서 신규 임용한 교수 14명에 대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편성해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순천대는 오는 27일 2020학년도 제1학기에 새로 임용된 조교 16명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학내 인권침해 현황 및 분석을

통해 현장 밀착도가 높은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순천대 박기영 인권센터장은 “이번 인권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했으며, 신입교수가 교육, 연구,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실제 일어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고흥산 해조류 우량종자 개발

고흥군은 24일 ‘고흥산 해조류 우량종자 개발 및 산업화 연구사업’ 2년 차를 맞이해 우량품종 시험양식 결과 고흥 해역에 적합한 김밥용 김 모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고흥 해역에 적합한 전국 최고의 김밥용 김 생산을 위해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과 연구협약을 체결 후 2019년부터 3년간 총 1억

5,000만원을 투자해 금산면 명천리 인근 해상에 4ha 규모의 시험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시험 품종의 양식에 돌입해 김양식용 부류망 10줄(20척)을 시설했으며, 채취한 우량품종 원조 1,700kg을 가공해 김밥용 김 720속을 생산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